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김 영 석 (Young-Seok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도서관 이름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 끝맺는 말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여 이름 사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172개관 중 교육청 소속 도서관 235개관을 제외한 937개관을 도서관 서비스 대상 및 운영 주체별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도서관 이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도서관 이름은 8가지 기본 유형과 31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5가지 기본 유형과 18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립도서관의 경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하나의 이름에 2~3개의 지명 사용, 불필요한 수식어 사용, 도서관의 설립주체 및 등급 표시 등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ame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to reveal the problems of naming and suggest alternatives of naming. As of the end of 2020, 937 out of 1,172 public libraries, excluding 235 libraries of the Provincial & Municipal Education Offic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library service target and operating organization, and each library name was analyzed.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were 8 basic types and 31 detailed types of local library names, and 5 basic types and 18 detailed types of children's and youth libraries. In the case of private librari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5 types of name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naming, such as the use of two or three place names in one name, the use of unnecessary modifiers, and the indication of library founder and grade.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름, 공공도서관 명칭, 공공도서관 네이밍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Name, Library Naming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7@mju.ac.kr / ISNI 0000 0004 6502 7407)

논문접수일자: 2022년 4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5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55-276,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255>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머리말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름(name)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인데,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사물을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고유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려동물이나 동물원에서 사는 일부 포유동물도 사람처럼 고유한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도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 단순히 대표명인 학교가 아닌 OO초등학교처럼 개별적으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도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도서관법 제3조)에 붙여진 대표 명칭인 도서관 외에도 OO도서관처럼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름과 명칭(名稱)은 단순히 순우리 말과 한자어의 차이일 뿐 그 사전적 의미는 같은데, 일반적으로 위의 도서관법에서 시설을 뜻하는 단어인 도서관은 명칭이라하고, OO도서관처럼 고유성을 갖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에 붙여진 이름이 고유성을 갖는 개별 기관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명칭이 아닌 이름이라고 정의하였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1,17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에 1,172개의 도서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과 일부 동물 그리고 기관, 단체 등은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다른 사람 및 다른 대상과의 구별을 위해 지어지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그리고 한 기관과 다른 기관을 쉽게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다.

단순히 도서관이 아닌 OO도서관처럼 개별 도서관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도서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개별 도서관 이름은 여러 사람들 간에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들은 개별 도서관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 도서관 운영자, 그리고 지방 및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특정 도서관 및 그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즉, 이용자와 시민들은 개별 도서관 이름을 통해서 특정 도서관을 쉽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소통하게 된다. 도서관의 운영자인 직원은 도서관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개별 도서관의 이름이 없다면 도서관 운영자는 특정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도서관의 관리자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역시도 하나하나의 도서관이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 도시의 가로변에서 자라는 수만 그루의 나무에 개별 식별 번호 즉,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개별 도서관의 이름은 일반 시민, 도서관 이용자, 운영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의 이름은 여러 이유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적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172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이상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도서관의 개별 이름을 분석하여 이름의 특징, 언어적 형태, 유형 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름 짓기 및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이름이 되기 위한 대안 즉, 바람직한 이름의 형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개별 이름을 조사하여 그 특징과 언어적 형태를 분석하고 도서관 이름 사용의 문제점을 밝혀 궁극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말 기준¹⁾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공공도서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름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계시스-

템에 ‘화성시립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으로 등록된 이 도서관은 자체 홈페이지에는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은 자체 홈페이지에는 ‘화성시립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이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도서관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과 도서관 홈페이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등록된 이름만으로는 도서관의 이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도서관 이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지명에서 차용한 것인지,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는 해당 도서관의 사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이름을 지명에서 차용한 경우 그 지명이 행정지명인지 아니면 자연지명 혹은 인문지명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포털의 Daum kakaomap 검색을 이용하였다.

2020년 말 기준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은 총 1,172개관이다. 이들 도서관을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914개관, 교육청 도서관이 235개관, 그리고 개인 및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23개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1,172개 모든 도서관 이름을 분석한 후에 이들 중 교육청 소속 235개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말 기준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청 소속 기관은 총 235개관이다. 이들의 개

1) 2022년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조사 결과임.

〈표 1〉 운영주체별 도서관 수 및 분석 대상 도서관 수(관)

운영 주체	도서관 수	1차 분석	분석 제외	최종 분석대상 도서관 수
지방자치단체(어·청소년도서관)*	914(102)	914(102)	.	914(102)
교육청	235	235	235	.
개인 및 민간단체	23	23	.	23(24) ²⁾
총 도서관 수(관)	1,172	1,172	235	937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별 이름을 1차 분석한 결과 ‘도서관’ 명칭을 사용한 곳은 193개관(82.1%)이고, 그렇지 않는 곳은 42개관(17.9%)으로 나타났다. 비도서관 명칭을 사용한 42개관의 명칭 유형으로는 교육문화회관 등 16개관,³⁾ 평생학습관 등 8개관,⁴⁾ 교육문화관 5개관, 교육정보센터 1개관, 교육문화원 등 기타 12개관⁵⁾으로 나타났다. 이들 42 개관의 명칭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칭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193개관의 이름도 4가지 기본 유형과 1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지자체 및 사립도서관 이름과 함께 분석하는 것은 논문의 분량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235개 교육청 도서관을 제외한 총 937개관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운영 주체 그리고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서 도서관 이름의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름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도서관을 공립(914개관)과 사립(24개관)으로 나누고, 다시 공립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관(102개관)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조사·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그 수가 총 914개관으로 많아 우선 강원도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 도서관 등 총 100개관⁶⁾을 대상으로 개별 도서관 이름의 유형과 특징을 예비조사(pilot study)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2개관을 제외하고 도서관 이름의 8가지⁷⁾ 기본 유형과 10여가지 세부 유형을 파악하여 〈표 2〉와 같이 조사·분석의 편리를 위해 각각의 유형을 코드화하였다.

2) 도서관통계시스템은 사립도서관 수를 23개관으로 공지하고 있음. 하지만, 설립주체별(사립)로 검색하면 24개관이 나옴. 따라서 이 도서관을 포함할 경우 전체 도서관 수는 1,173개관이 됨.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식 공지를 근거로 해서 전체 도서관 수를 1,172개관으로 정하고자 함. 다만, 사립도서관의 이름 분석에서는 그 수를 24개관으로 기술하였음.

3) 학생교육문화회관 2개관, 교육문화회관 11개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1개관, 학생복지회관 1개관, 학생회관 1개관.

4) 평생학습관 6개관, 평생교육학습관 2개관.

5) 학생교육문화원 5개관, 평생교육관 3개관, 평생교육원 4개관.

6)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관 중 처음 100개관.

7) 영어도서관 유형 제외.

이러한 예비 분석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성된 8가지 기본 유형과 10여가지 세부 유형 코드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여 코드화하였다. 분석과정에서 1차 완성된 10여가지 세부 유형에 없는 이름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세부 유형 코드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영어도서관 유형을 제외하고 8가지 기본 유형과 31가지⁸⁾ 세부 유형이 나타났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같은 방식으로 102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여 그 기본 유형을 파악하고,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을 코드화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같은 방식으로 24개 사립도서관 이름의 특징과 언어적 형태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름, 명칭, 네임(name)의 의미와 차이

이름은 타인과 나를 구분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일부 동물들도 인간이 부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말하는 이름과 모든 인간과 일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름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에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집단을 칭하는 이름 즉, 소나무, 고래, 잠자리, 개구리 등과 같은 집단명과, 사람과 일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름 즉, 박봉석, 엄대섭, 바둑이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집단명에 해당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름과 구분되는 것으로 '명칭'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말에서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한자어인 명칭(名稱)이다. 그런데 '명칭'이라는 단어는 '공공도서관 명칭'과 함께 사용되면서 대체로 '공공도서관'이라는 집단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윤희윤(1999)은 '한국 공공도서관의 진로-명칭변경 음모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평생 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관 명칭'의 의미는 개별 도서관의 이름이 아닌 모든 도서관 즉, 도서관 전체를 의미하는 집단명으로 사용되었다.

조수연과 박성진(2015)은 '도서관 명칭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 분석'에서 파주 출판단지에 설치된 '지혜의 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논란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관 명칭도 윤희윤의 연구와 같이 개별 도서관의 이름이 아닌 도서관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신수진(1996)도 '교육부의 딜레마-공공도서관 명칭 변경'이라는 글에서 명칭이라는 단어를 개별 도서관의 이름이 아닌 도서관 전체를 의미하는 집단명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8) 31가지 유형 중 일부(2가지) 세부 유형을 다시 세분한 것은 제외한 숫자임.

그러나 ‘도서관 명칭’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도서관 전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별 도서관의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개별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구미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구미시립도서관을 구미시립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사실과 조항을 변경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도서관 명칭은 도서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이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명칭이라는 단어는 주로 도서관 전체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개별 도서관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명칭이 아닌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도서관’이라는 집단명 앞에 붙는 개별 이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말 ‘이름’과 한자어인 ‘명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단어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가 외래어인 네임(name)이다. 그런데 이 네임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름이나 명칭을 대신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그런데 이 네임은 최근에 마케팅에서 네이밍(nam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비로소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종관은(2003) ‘네이밍은 마케팅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즉, 네이밍은 마케팅 전략의 일부인데,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자신

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품에 적절한 브랜드명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개별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잘 인식되어 도서관이 활발하게 이용되도록 하는데 어떤 도서관 이름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의 일부인 네이밍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네이밍 보다는 네임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데 우리말 이름 대신에 ‘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네임이 외래어이고,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을 부르는 호칭을 명칭이나 네임 대신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분석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 명칭과 관련된 연구는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윤(1999)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하였다. 조수연과 박성진(2015)은 과주 출판 단지에 설치된 ‘지혜의 숲’에 대한 도서관 명칭 사용 논란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이 둘의 연구는 개별 도서관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집단명, 즉 도서관 명칭에 대한 연구이다.

도서관 이름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결과 현재까지 어떤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이름과 관련된 국내의 첫 번째 연구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 이름과 명칭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3 외국 공공도서관의 이름 현황 및 분석 결과

2.3.1 일본의 사례

일본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의 한 구와 교토시 등 두 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世田谷) 구에는 2022년 기준 총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세타가야구 도서관 영문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소를 통해 이들 16개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나의 도서관, 즉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만이 도서관의 등급을 표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5개의 분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명을 딴 도서관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교토시(京都)에는 1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영문 홈페이지에 나타난 주소를 근거로 19개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5개 도서관이 지명을 기본으로 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2개의 도서관은 지명에 시설명이 추가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도서관은 시설명에서 딴 이름을 가지고 있고, 4개관은 ‘중앙(central)’이라는 도서관의 등급을 표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본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체로 일본 도서관은 지명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도서관의 등급을 표시하는 ‘중앙’은 몇몇 도서관의 이름에 나타나 있으나 ‘분관’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도서관 이름에 도서관의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과 같은 표시가 없다. 넷째, 도서관 이름에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본 도서관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대체로 간결하다.

2.3.2 미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를 시애틀시(Seattle City)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2022년 현재 인구 60여 만명의 시애틀에는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을 제외하고 총 2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이 중 하나는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이고 나머지는 분관(branch library)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애틀 지도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26개의 분관 중 지명으로 이름을 지은 도서관은 총 24개관이고, 하나는 지명에 사람 이름을 붙인 것⁹⁾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 이름으로 도서관 이름¹⁰⁾을 지었다.

시애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 공공도서관 이름의 특징은, 첫째, 거의 모든 도서관이 지명을 근거로 이름을 짓고 있다. 둘째,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지명에 ‘library’가 아닌 ‘branch’를 붙여 도서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이름에 ‘시’, ‘구’ 그리고 ‘시립’과 같은 표시가 없다. 넷째, 시애틀 전체 도서관¹¹⁾을 의미할 때는 도서관 이름에 ‘공공(public)’이라는 단어

9) Madrona-Sally Goldmark Branch. Madrona는 지명이고, Sally Goldmark는 사람 이름이다.

10) Douglass-Truth Branch. 이 도서관의 이름은 Frederick Douglass와 Sojourner Truth라는 두 흑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1) Seattle Public Library.

를 붙인다. 결론적으로 미국 도서관 이름도 일본처럼 길지 않고 간결하며 통일되어 있다.

2.3.3 영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를 버밍햄시(Birmingham City)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2022년 현재 인구 약 110만명의 버밍햄에는 총 37개¹²⁾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이 중 하나는 중앙도서관이고 나머지는 분관이다.

버밍햄도서관(the Library of Birmingham)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키피디아의 버밍햄 지명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36개 모든 도서관의 이름이 지명으로 지어졌다.

버밍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영국 공공도서관 이름의 특징은, 첫째, 모든 도서관이 지명을 근거로 이름을 짓고 있다. 둘째, 중앙도서관의 이름도 중앙(central)이라는 도서관의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Birmingham이라는 도시명을 따서 'the Library of Birmingham'이라고 부른다. 셋째,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분관)은 지명에 'library'를 붙여 이름을 짓고, 도서관 이름에 'branch'를 붙이지 않는다. 넷째, 일본,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이름에 '시', '구' 그리고 '시립'과 같은 표시가 없다. 다섯째, 중앙도서관(the Library of Birmingham)을 포함하여 어느 도서관도 도서관 이름에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영국 도서관 이름 역시 일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형식 또한 통일되어 있으며 매우 간결하다.

3. 도서관 이름 분석

3.1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이름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102개관을 제외하고 812개관이다. 이를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이름은 8가지¹³⁾(A ~ H) 기본 유형과 31가지 세부 유형(Aa ~ Hc)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A 기본 유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정지명¹⁴⁾(이하 행지명) 1, 2나 혹은 '자연지명¹⁵⁾'이나 인문지명¹⁶⁾'(이하 자·인지명¹⁷⁾) 중 하나를 사용한 경우로 총 812개 도서관 중 267개관(32.9%)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8가지 기본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본형 Aa형으로 도서관 앞에 행지명을 붙인 것으로 보령공공도서관, 강진군도서관 등 155개관(19.1%)이 있다. 31개 세부 유형

12)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39개로 소개되어 있으나 하나는 건물이 없는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이용할 수 없는 가정으로 자료를 배달서비스만 하는 도서관(Home Library)이다.

13) 별도로 유형을 만든 I형(영어도서관 그룹) 제외.

14)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도, 구·시·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15) 산·강·고개·평야·해안·포구·숲·취락 등에 붙여진 명칭을 말함.

16) 행정지명을 제외한 인공의 구역과 시설 등에 붙여진 명칭을 말함.

17) <표 2>에서는 '지명'으로 표시함.

중 가장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이름은 간결하고 기억하기에 용이하여 가장 보편화한다고 하겠다. 둘째는 Ab형으로 이 이름은 기본형 Aa형에 ‘시립’ 및 ‘구립’과 같은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로 태백시립도서관, 강화군립도서관 등 53개관(6.5%)이 있다. 셋째는 Ac형으로 이 이름은 기본형 Aa형에 도서관의 등급을 나타내는 ‘중앙’을 이름에 넣는 경우로 군포시중앙도서관, 성남시중앙도서관 등 18개관이 있다. 넷째는 Ad형인데 이 이름은 Ab형과 Ac형의 혼합형으로 행정지명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 및 ‘구립’과 같은 단어와 도서관의 등급을 나타내는 ‘중앙’이 붙는 경우로 강릉시립중앙도서관 등 14개관이 있다. 다섯째는 Ae형으로 행정지명이 아닌 자·인지명이 도서관 앞에 붙는 경우로 가람도서관 등 27개관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주로 분관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B 기본 유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명 혹은 하나의 행지명에 하나의 자·인지명을 사용한 경우로 총 812개 도서관 중 36.6%에 해당하는 297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8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Ba형으로 두 개의 행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B형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양주시화도도서관 등 127개관(15.6%)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Bb형은 Ba형에 ‘시립’ 및 ‘구립’과 같은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로

동해시립발한도서관, 고양시립한뫼도서관 등이 있다. Bb형은 다시 Bba형과 Bbb형으로 나누어지는데 Bba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명이 들어가는 형으로 동해시립발한도서관 등 121개관(14.9%)이 여기에 해당된다. Bbb형은 하나의 행지명과 하나의 자·인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고양시립한뫼도서관 등 14개관이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유형은 Bf형으로 도서관 앞에 행지명과 자·인지명이 하나씩 붙는 경우나, 아니면 도서관 앞에 두 개의 자·인지명이 붙는 경우로 고성동부도서관과 함박비류도서관 등 22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C 기본 유형은 이름에 세 개의 행지명 및 자·인지명이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 도서관 중 11개관(1.4%)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2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Ca형으로 세 개의 행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광주북구운암도서관 등 8개관이 있다. 이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명, 기초자치단체명 그리고 행정구역인 동명을 모두 이름에 넣은 것이다. 이 도서관은 광주 북구도서관의 분관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운암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네 번째 D 기본 유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명과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 도서관 중 129개관(15.9%)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8가지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Da형으로 하나의 행지명과 명사를 도서관 앞에 붙인 것으로 광진정보도서관 등 77개관

〈표 2〉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이름 유형

유형 도서관수	도서관 이름의 구조	도서관 이름 사례	코드(code)/도서관수
A (명사 사용 없음) 267개관 (32.9%)	지명+(공공)도서관	가수원도서관	Aa/155
	지명+설주@+도서관	태백시립도서관	Ab/53
	지명+등급+도서관	보령시중앙도서관	Ac/18
	지명+설주+등급+도서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Ad/14
	지명**+도서관	가람도서관	Ae/27
B (명사 사용 없음) 297개관 (36.6%)	지명1+지명2+도서관	남양주시화도도서관	Ba/127
	지명1+설주+지명2+도서관	동해시립발한도서관	Bba/121
	지명1+설주+지명3+도서관	고양시립한의도서관	Bbb/14
	지명1+설주+도서관+지명2+등급	김제시립도서관금구분관	Bc/9
	지명1+설주+등급+도서관+ 지명2+등급	파주시립중앙도서관 금촌분관	Bd/3
	지명1+지명2+등급+도서관	울산북구중앙도서관	Be/1
	지명1+지명3+도서관 (지명3+지명3+도서관)	고성동부도서관 (함박비류도서관)	Bf/22
C 세 개의 지명 ¹⁸⁾ (1, 2, 3) 사용 11개관 (1.4%)	지명1+지명2+지명2+도서관	광주북구운암도서관	Ca/8
	지명1+지명2+지명3+도서관	울산남구도산도서관	Cb/3
D 하나의 지명 (1, 2, 3)과 명사* 사용 129개관 (15.9%)	지명+명사*+도서관 (명사+지명+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Da/77
	지명+명사+명사*+도서관 (명사+명사+지명+도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소나무언덕잡실분동도서관)	Db/20
	지명+설주+명사*+도서관 지명+설주+도서관+명사*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꽃심	Dc/30
	지명+설주+명사*+명사+도서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Dd/1
	지명+설주+명사*+등급+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De/1
E 두 개의 지명 1, 2 혹은 1, 3과 명사* 사용 28개관 (3.4%)	지명1+지명2+명사*+도서관	광주남구푸른길도서관	Eaa/15
	지명1+지명3+명사*+도서관	화성시송린이음터도서관	Eab/2
	지명1+지명2+명사+명사+도서관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Eb/1
	지명1+설주+지명2+명사*+도서관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Ec/9
	지명1+설주+지명3+명사*+도서관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	Ed/1
F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 사용 53개관 (6.5%)	명사*+도서관	모루도서관, 화랑도서관	Fa/43
	명사*+명사+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	Fb/8
	명사*+명사+숫자+도서관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관	Fc/2
G 설립주체를 앞에 명시함 5개관 (0.6%)	설주+지명+도서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Ga/2
	설주+지명+명사*+도서관 (설주+지명+도서관+명사*)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Gb/2
	설주+명사*+도서관	구립김영삼도서관	Gc/1
H 기관명 사용 14개관 (1.7%)	기관명+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Ha/7
	기관명+등급+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Hb/1
	기관명+지명+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본부 도솔도서관	Hc/6
I 영어도서관 8개관 (1.0%)	지명+영어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5)	
	지명+설주+영어도서관	밀양시립영어도서관(1)	
	지명1+설주+지명2+영어도서관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1)	I/8
	지명+영어+명사+도서관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1)	
812개관		합계	812관

행정지명(지명1, 지명2) 혹은 자·인지명(자연지명이나 인문지명, 지명3), @ 설립주체, * 일반명사 또는 고유명사, ** 자·인지명

18) 지명1+지명2+도서관의 경우 지명1은 광역지자체(시·도)명이고, 지명2는 기초지자체(시·구·군)명임. 혹은 지명1은 기초지자체명이고, 지명2는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명임. 한편, 지명1+지명2+도서관(예, 광주북구운암도서관)의 경우 지명1은 광역지자체(광주시)명이고, 앞의 지명2는 기초지자체(북구)명이고, 뒤의 지명2는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운암동)명임.

(9.5%)이 있다. 이 유형은 지명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의 단점을 명사를 넣음으로써 보완해보 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할 유형은 Dc형으로 지명 뒤에 설립주체를 명시하고 다시 도서관 앞 혹은 뒤에 명사를 넣는 경우로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꽃심 등 30개관이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유형은 Db 형으로 하나의 지명과 두 개의 명사를 넣은 경우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¹⁹⁾ 등 20개관이 있다.

다섯 번째 E 기본 유형은 이름에 두 개의 지명과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관 중에서 28개관(3.4%)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4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 할 유형은 E형의 기본형으로 도서관 앞에 두 개의 지명과 하나의 명사가 들어가는 Eaa형으로 광주남구푸른길도서관²⁰⁾ 등 15개관이 있다.

여섯 번째 F 기본 유형은 이름에 지명은 없고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관 중에서 53개관(6.5%)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 할 유형은 F형의 기본형으로 도서관 앞에 하나의 명사만 들어가는 Fa형으로 모루도서관, 화랑도서관 등 43개관(5.3%)이 있다. 대체로 지명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분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 짓기 유형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G 기본 유형은 독특하게 이름에

설립주체를 먼저 명시하고 이어서 지명이나 명사를 넣는 경우로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등 5개관이 있다. 8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도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가 말해 주듯 G형의 이름은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하다. 따라서 이름에서 구립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H형은 이름에 기관명을 넣는 경우로 14개관(1.7%)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 할 유형은 H형의 기본형인데, 도서관 앞에 기관명이 들어가는 Ha형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등 7개관이 있다. 한편, H형으로 기관명 뒤에 지명을 넣는 경우로 Hc형이 있는데 천안시가 직영하는 천안시문화도서관본부도솔도서관 등 6개관이 있다. 이러한 이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들 6개 도서관은 천안시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화도서관본부라는 조직명을 넣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간결하게 천안도솔도서관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속 도서관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을 제외한 일반 영어도서관은 8개관이다. 이들 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따로 뽑아 분석하였다. 이들의 이름을 I형으로 분류하였는데, I형은 4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영어도서관 앞에

19)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문화정보'를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정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 즉, 두 개의 명사로 간주하였다.

20) 푸른길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단어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푸른 길'보다 한 단어인 '푸른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점을 근거를 하나의 명사로 간주하였음.

지명을 넣는 것인데 강서영어도서관 등 5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장 간결해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양천구영어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영어와 도서관 사이에 ‘특성화’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색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영어도서관 그 자체가 영어로 특성화되고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2 지자체 소속 어린이·청소년도서관²¹⁾의 이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청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보통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하나만 운영되고, 어린이·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 이용자층을 위한 도서관이며, 장서도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를 위해 구성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을 별도로 조사·분석하였다.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속 어·청도서관은 어린이영어도서관 4개관과 기적의도서관 15개관을 포함하여 총 102개관이다.

지자체 소속 102개 어·청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5가지(Oa, Ob, Oc, Od, Oe) 기본 유형과 18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기본형 Oa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명²²⁾ 1, 2나 혹은 자·인지명²³⁾ 중 하나를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관 중 45.1%에

해당하는 46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본형 Oaa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도서관’을 붙인 것으로 이천시어린이도서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이 있다. Oaa형은 지자체 소속 어·청도서관의 세부 18가지 이름 유형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총 102개관 중에서 34.3%(35개관)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수의 어·청도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유형의 이름은 간결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다만, 어느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가 어·청도서관을 건립하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같은 방위지명을 사용하여 ‘중구어린이도서관’, ‘북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처럼 이름을 지을 경우 다른 지자체의 도서관 이름과 같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대구의 서구어린이도서관과 대전의 서구어린이도서관은 이름이 같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대구서구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도서관 이름 앞에 광역자치단체명을 붙이거나 혹은 ‘서구희망어린이도서관’과 같이 지명과 ‘도서관’ 사이에 일반명사를 넣거나 아니면,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과 같이 일반명사를 사용해서 완전히 고유한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겠다. 둘째는 Oab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붙인 것으로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등이 있다.

21) 지자체 도서관 중 도서관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은 총 10개관이다. 이중 5개관은 청소년도서관이고, 나머지 5개관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다.

22)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도, 구·시·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23) 산지·하천·평야·해안·숲·취락 등의 명칭을 말함.

〈표 3〉 지자체 소속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이름 유형

유형 도서관수(%)	도서관 이름의 구조	도서관 이름 사례	코드(Code)/도서관수
하나의 지명 (1, 2 혹은 3) 사용 46개관 (45.1)	지명+어 · 청도서관*	이천시어린이도서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Oaa / 35
	지명+어린이+영어도서관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Oab / 2
	지명+설주@+어 · 청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Oac / 2
	지명+설주+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Oad / 1
	지명3+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Oae / 6
두 개의 지명 (1, 2) 사용 10개관(9.8)	지명1+지명2+어 · 청도서관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Oba / 6
	지명1+설주+지명2+어도서관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Obb / 4
하나의 지명 (1, 2, 3)과 명사# 사용 17개관 (16.7)	지명+명사#+어도서관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Oca / 10
	지명+명사#+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지명+어린이+명사+도서관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Ocb / 1
	지명+설주+명사+어도서관	화성시립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Occ / 2
	지명+설주+명사+명사+청도서관**	강서구립푸른들청소년도서관	Ocd / 2
	지명+명사+명사+어 · 청도서관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Oce / 1
	지명+청소년+명사+명사+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Ocf / 1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명사# 사용 11개관 (10.8)	명사+어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Oda / 9
	명사+명사+어도서관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Odb / 2
기타 18개관 (17.6)	기관명+어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Oea / 1
	어린이 · 청소년+명사+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Oeb / 2
	지명1+기적의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Oec / 15
	지명1+지명2+기적의도서관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합계 102개관(100)	.	.	102개관

* 어 · 청도서관: 어린이 혹은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 청도서관: 청소년도서관, # 일반명사 혹은 고유명사

셋째는 Oac형으로 이 이름은 기본형 Oaa형에 ‘시립’ 및 ‘구립’과 같은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등이 있다. 넷째는 Oad형으로 Oac형의 이름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영어어린이도서관이 되는 경우로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다. 다섯째는 Oae형으로 행지명이 아닌 자 · 인지명에 ‘어린이도서관’을 붙인 것으로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독정골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본형 Ob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

명을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 · 청도서관 중 9.8%에 해당하는 10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Oba형으로 두 개의 행지명에 어린이도서관을 붙인 것으로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둘째는 Obb형으로 Oba형 이름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 및 ‘구립’과 같은 단어를 넣는 경우로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세 번째 기본형 Oc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

명과 명사를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관 중 17개관(16.7%)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여섯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Oca형으로 행지명에 명사를 붙인 것으로 강서꿈꾸는어린이 도서관 등 10개관이 있다. 둘째는 Ocb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가 붙고 그 뒤에 명사와 도서관이 붙는 경우로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이 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이름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간결하게 진주시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는 Oca형 이름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 및 ‘구립’과 같은 단어를 넣는 경우로 화성시립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그 외 Oce형은 하나의 행지명에 두 개의 명사²⁴⁾를 붙이는 경우로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네 번째 기본형 Od형은 지명 사용 없이 이름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 혹은 고유명사만을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관 중 11개관(10.8%)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Oda형으로 어린이도서관 앞에 명사만 붙는 경우로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등 9개관이 있다. 둘째는 Odb형으로 어린이도서관 앞에 두 개의 명사가 붙는 경우로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등 2개관이 있다.

끝으로 Oe형은 위의 앞의 네 가지 유형(Oa~Od)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관명에 어린이도서관을 붙인 형태로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둘째는 독특하게 이

름에 ‘어린이’를 앞에 두고 그 뒤에 하나의 명사를 넣는 형태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전국에 있는 15개 기적의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적의도서관’은 이름에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상징적인 어린이도서관이다. 전국의 모든 ‘기적의도서관’은 기적의도서관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된 도서관으로 ‘기적의도서관’이라는 이름을 행지명 뒤에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경우이다. 2003년에 건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5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3.3 사립도서관의 이름

2020년 말 기준 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사립도서관은 총 24개관이다. 이들 도서관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사립도서관의 이름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PLa, PLb, PLc, PLd, PLe)으로 나타났다. 첫째, PLa형은 명사를 도서관 앞에 붙인 것으로 총 24개 도서관 중 10개관(41.7%)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표 4>와 같다. 이러한 특징은 자체 도서관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도서관의 경우 명사를 도서관 앞에 붙인 이름은 전체의 6%(49개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도서관의 이름이 공립도서관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사립도서관의 경우 공립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행지명을 도서관 이름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 ‘길꽃’을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길꽃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 즉, 두 개의 명사로 취급하였다.

〈표 4〉 사립도서관 이름의 유형

이름 유형	이름 구조	도서관 사례
PLa 10개관	명사+도서관	관옥나무도서관 ²⁵⁾ 꿈꾸는 마을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2개관), 더불어 숲(도서관) 마하어린이도서관, 만화도서관 ²⁶⁾ 맨발동무도서관, 새벗도서관 푸른초장공공도서관
PLb 4개관	시설명+도서관	가락몰도서관, 동일(교회)도서관 명성교회도서관, 비전도서관
PLc 1개관	명사+시설+도서관	지샘터올림픽공원도서관
PLd 4개관	지명+도서관 호(號), 유적지명+도서관	청주열린도서관, 한들마을도서관 명봉도서관, 화홍어린이도서관
PLe 5개관	기타	4.19혁명기념도서관, 라이브러리 티티섬 사립공공 연암도서관, 한국학생도서관 한국장학재단 ... 인성교육 도서관 ²⁷⁾

둘째, PLb형은 시설명이 도서관 앞에 붙는 경우로 주로 교회에서 건립·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명성교회도서관 등이 있다.

세째, PLC형은 PLa와 PLb형의 혼합형으로 명사와 시설명이 나란히 도서관 앞에 붙는 경우로 지샘터올림픽공원도서관이 있다.

넷째, PLd형은 행지명, 호(號), 자·인지명 등이 도서관 앞에 붙는 경우로 총 24개 도서관 중 4개관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립도서관처럼 도서관 앞에 각각 행지명과 자·인지명을 붙인 청주열린도서관과 한들마을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호(號)를 딴 것으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고(故) 흥수표²⁸⁾씨의 아호를 딴 명봉도서관이 있다. 또한 지역의 주요 유적지명을 딴 도서관으로 수원화성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에서 이름을 가져온

화홍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다섯째는 기타 유형으로,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은 4.19혁명기념도서관, 도서관을 외래어로 표기한 라이브러리 티티섬, 대구에 있는 연암산에서 이름을 따오고, 그 앞에 사립이지만 공공도서관이라는 의미로 ‘사립공공’을 붙인 ‘사립공공 연암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을 이름에 넣은 한국학생도서관이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대학생연합생활관 인성교육 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한국장학재단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립한 첫 번째 대학생연합생활관의 인성교육관 내에 있는데, 이 모든 의미를 이름에 담게 되면서 이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름은 누구나 쉽게 부르고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25) 전화로 확인한 결과 '관옥'은 觀玉으로 즉, '구슬을 본다'는 뜻이라고 함.

26) 등록된 이름과는 별도로 '예술정보도서관 다감'이라고 부르기도 함.

27)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완전한 이름은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대학생연합생활관 인성교육 도서관'임.

28)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대씨의 부친.

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짧은 이름을 짓는 것이 필요하겠다.

3.4 도서관별 이름의 특징

분석 결과 도서관별로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첫째, 도서관 이름은 크게 8가지²⁹⁾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도서관 이름에 하나 혹은 두 개의 행지명이 들어가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전체의 69.5%(564개 관)에 이른다. 셋째, 행지명에 명사를 하나 혹은 둘을 붙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전체의 19.3%(157개 관)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첫째, 도서관 이름은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지자체 도서관보다 이름에 명사를 넣는 경우가 더 많다.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이름에 명사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각각 26.8%와 73.2%다. 반면에 어·청도서관의 경우 전자가 33.3%, 후자는 66.7%로 나타나 지자체 도서관보다 전자의 비율이 다소 높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순수하게 하나 혹은 2개의 명사만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전체의 6.5%에 불과하지만, 어·청도서관의 경우 그 비율이 10.8%로 지자체 도서관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어·청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 이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고, 행지명 사용에서 오는 도서관 이름의 딱딱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사립도서관의 경우 이름에 지명을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다. 도서관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경우는 전체 24개관 중에서 2개관(8.3%)에 불과하다. 반면에 명사를 사용한 이름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여 11개로 전체 24개 도서관 이름의 45.8%에 이른다. 사립도서관의 이름에서 나타난 흥미 있는 사실은 도서관 이름에 '나무'나 '숲'을 붙인 경우가 4개관³⁰⁾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도서관의 설립자가 도서관을 '지식과 지혜의 나무'로 비유하고, 그런 '지식과 지혜의 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5 도서관 이름의 문제점

'네이밍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업이다'(현대경영연구소, 2010, 335)라고 했다. 즉, 도서관의 이름은 도서관 혹은 지자체와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도서관의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듣기 편하고, 쓰기 편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름은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간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이름을 조사·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복잡하고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이름에 너무 많은 지명을 넣어 사

29) 영어도서관 그룹 제외.

30) 관옥나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2개관), 더불어 숲(도서관).

용하고 있는데, 최고 세 개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등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도서관의 이름이 복잡해지고 길어졌다.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름에 어린이, 영어, 작은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정책³¹⁾도 도서관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일정부분 연관됐다고 하겠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 건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서관 건립 비용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지원을 받아 건립된 도서관 중 264㎡ 이상의 도서관에도 도서관 이름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넣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일부 도서관의 이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이름이 길어지게 되었다. 도서관통계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9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2020년 말 기준)도 5개 도서관³²⁾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불필요한 단어 예를 들면, ‘정보문화’, ‘문화정보’와 같은 단어를 넣으려는 습관 때문에 도서관의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미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도서관의 개념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넷째, 지자체 단위(도, 시·군, 구), 도서관의 설립주체(도립, 시립, 구립), 도서관의 등급(중앙, 분관, 대표) 등을 도서관 이름에 명시하

려는 습관 때문에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주시립중앙도서관금춘분관’이다. 띄었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2자에 이른다. 이 도서관은 같은 파주의 ‘적성도서관’처럼 간결하게 ‘금춘도서관’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도서관 이름에 자체 단위, 도서관의 설립주체, 도서관의 등급 등이 표시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울산시는 2016년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 신축하는 울산 대표도서관의 이름을 공모했다. 그 결과 1차 공모를 통해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도서관’, ‘울산중앙도서관’, ‘울산시립중앙도서관’, ‘울산가온도서관’ 등 총 5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이름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위원회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간결하고 짧은 ‘울산도서관’이 선정되었다.

경상북도는 2017년 5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경북대표도서관의 이름을 공모했다. 이 공모를 통해 ‘경북도서관’, ‘경북도립도서관’, ‘경북중앙도서관’, ‘경북가온도서관’, ‘경북누리도서관’ 등 5개를 1차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5개 이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최고 점수와 도민선호도 조사에서 48.76%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경북도서관’을 최종 이름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2024년 준공목표인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명칭 공모를 지난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2,678건의 응모작 중 20

31)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명칭이 등장하였고, 2012년 8월부터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었다.
32) 이들 5개 도서관은 그 연면적이 공공도서관의 최소 면적기준인 264㎡ 이상이기 작은도서관이 아니다.

건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추린 다음 그 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서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이름에서 설립주체나 지자체 단위를 생략할 경우 드물지만 동명이관(同名異館)³³⁾이 될 수 있다. 즉,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그리고 각기 다른 지자체 도서관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자체 소속의 달성군립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의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이 있는데, 이들 도서관의 경우 이름에서 설립주체를 생략할 경우 달성도서관으로 이름이 같아진다. 후자의 예를 들면, 서울 양천구의 갈산도서관과 인천시 부평구의 갈산도서관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립주체나 지자체 단위를 이름에 넣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행정지명이 아닌 자·인지명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동명이관을 피할 수 있겠다.

다섯째, 지명을 대신하는 명사를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도서관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예를 들면,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의 경우 유일하고 개성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살려 ‘아람누리도서관’으로 간결하게 사용해도 될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문화자리적인 특성을 살리고 도서관 이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명이 아닌 명사로 이름을 지었다.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소나무언덕 1호 도서관’, ‘소나무언덕 2호 도서관’처럼 도서관 이름을 통일화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일된 이름에 지명까지 붙이게 되면서 이름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이다.

여섯째, 사립도서관의 경우도 지명 대신에 명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난해해졌는데, 그 사례로는 지샘터올림픽공원도서관이 있다.

4. 끝맺는 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름의 특징, 언어적 구성 형태, 유형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1,172개관을 대상으로 1차 분석한 후 교육청 도서관(235개관)을 제외한 최종 937개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도서관, 지자체 소속 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별 이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대체로 하나 혹은 두 개의 행정지명을 사용하여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행정지명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를 붙여 이름을 짓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다른 지자체 도서관보다 이름에 명사를 넣은 경우가 더 많다. 사립도서관의 경우 이름에 지명을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름은 전국적 그리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통일되어

33) 다른 도서관 같은 이름

있지 않고, 길고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하나의 이름에 2~3개의 지명 사용, 정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어린이도서관 건립 경향, 지자체의 영어도서관 설치 유행, 이름에 불필요한 수식어 사용 및 도서관 설립주체, 지자체 단위, 도서관 등급 등 명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지명과 일반명사 혼용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이름을 짓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급적 하나의 지명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다.

한 자치단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에서 도서관 이름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먼저, 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은 시의 이름인 '고양'에서 따와 '고양도서관'으로 짓는다. 이 경우 가급적 '중앙'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한다. 다음으로 시 아래 각 구에서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해당 구(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에서 이름을 따와 '일산동도서관', '일산서도서관', '덕양도서관'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 경우 행정단위 용어인 '구' 사용은 지양한다. 끝으로 그 외 각 동네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동의 이름을 따서 '덕이도서관', '행신도서관', '식사도서관' 등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이름짓기에 통일성이 있고, 이름만으로 그 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서비스 및 서비스 대상 그리고

규모를 한정짓는 명칭인 영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성인 등 일반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고, 현재 OO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5개관은 이름만 작은도서관이지 그 규모는 공공도서관의 최소면적 (264m^2) 이상이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에 어린이, 작은 등의 용어를 더 이상 붙일 이유가 없다.

셋째, 이름에 문화정보, 정보문화, 디지털정보 등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의 사용을 지양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정의에 그 수식어의 의미가 이미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름에 도서관의 설립주체(도립, 시립, 군립, 구립), 지자체 단위(광역시, 도, 시·군·구), 도서관의 등급(중앙, 분관) 등의 표시를 가급적 생략한다. 다만 이렇게 하였을 경우 동명이관이 되면 제한적으로 설립주체나 지자체 단위를 이름에 넣거나, 아니면 행정지명이 아닌 자·인지명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도록 한다.

다섯째,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일반명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지명을 생략하여 고유명사 사용의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

여섯째, 사립도서관의 경우 사립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이름에 지명을 넣기 보다는 일반명사나 고유명사로 이름을 지어 도서관의 개성을 살리는 노력을 한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 2022.12.8.) 제36조(등록)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은 관할 행정기관에 도서관을 등록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도서관 등록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서관 이름 사용 및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자체가 도서관 이름을 외래어로 지었을 경우 그 도서관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현재 두 자치단체가 도서관 이름에 부분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도서관의 이름이 OO라이브러리이다. 사립도서관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다.

둘째, 사립도서관의 경우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현재 두 개의 사립도서관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사립도서관의 경우 매우 긴 이름을 가진 도서관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현재 한 사립도서관은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대학생연합생활관 인성교육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사립도서관이지만 이러한 이름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京都市圖書館 [발행년불명].

출처: <https://data.city.kyoto.lg.jp/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

[2] 경북 대표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2017). 오늘의 도서관, 254, 62.

[3] 고종관 (2003). 의료기관의 네이밍과 브랜드 관리. 의료정책포럼, 1(3), 121-126.

[4] 김희정 (2017.5.30). 경북대표 도서관 이름 ‘경북도서관’ 확정. 쿠키뉴스.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705300136>

[5] 박정훈 (2016.11.14). 울산 시립도서관 이름 붙여주세요. 서울신문.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500086>

[6] [부천소식] 시립도서관 3곳 이름 공모 (2017.1.31).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1037600065>

[7] 世田谷區教育委員會事務局 中央圖書館 (2019). 世田谷のとしょかん.

출처: <https://libweb.city.setagaya.tokyo.jp/pdf/vision/overviewR01.pdf>

[8] 신수진 (1996). 교육부의 딜레마-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중등우리교육, 73, 53.

[9] 윤희윤 (1999). 한국 공공도서관의 진로: 명칭변경 음모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28.

[10] 이예伦 (2020.7.22). 경기도대표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미래경제뉴스.

출처: <http://www.mirae.news/news/articleView.html?idxno=2341>

[11] 조백현 (2013.2.12). 도서관 이름 짓고 상품도 받고. 뉴스타워.

- 출처: <http://www.newsto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2>
- [12] 조수연, 박성진 (2015). 도서관 명칭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71-198.
- [13] 한종구 (2016.3.29). 충남도, 내포신도시 도서관 이름 공모. *연합뉴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801544>
- [14] 현대경영연구소 (2010). *미래산업과 네이밍*. 서울: 승산서관.
- [15] 홍승준 (2015.3.9). 도서관 이름 짓고 상품권 받자. *공항투데이*.
출처: <http://www.air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3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yoto City Library [n.d.]. Available: https://www2.kyotocitylib.jp/?page_id=154
- [2] Official name of Gyeongbuk Representative Library? (2017). Today's Library, 254, 62.
- [3] Ko, Jong-Gwan (2003). Naming and brand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Policy Forum, 1(3), 121-126.
- [4] Kim, Hui-Jeong (2017, May 30). Name of Gyeongbuk Representative Library is confirmed as 'Gyeongbuk Library'. Kuki News. Available: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705300136>
- [5] Park, Jeong-Hun (2016, November 14). Naming contest for Ulsan Municipal Library. The Seoul Shinmun. Available: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500086>
- [6] [Bucheon News] Naming contest for three libraries (2017, January 31). Yonhap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1037600065>
- [7] Central Library, Board of Education Division, Setagaya City (2019). Library of Setagaya. Available: <https://libweb.city.setagaya.tokyo.jp/pdf/vision/overviewR01.pdf>
- [8] Shin, Su-Jin (1996). Dilemm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changing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Jungdeung Urikyoyuk, 73, 53.
- [9] Yoon, Hee-Yoon (1999). Future direc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conspiracy of the changes of name.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28.
- [10] Yi, Ye-Ren (2020, July 22). Name the Gyeonggi representative library. Mirae Economy News. Available: <http://www.mirae.news/news/articleView.html?idxno=2341>
- [11] Cho, Baek-Hyun (2013, Febuary 12). Name the library and receive a prize. News Tower.

- Available: <http://www.newsto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2>
- [12] Cho, Su-Yeon & Park, Sung-Jin (2015). Social discourse analysis on title and role of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171-198.
- [13] Han, Jong-Gu (2016, March 29). Chungnam Province, Naming contest for Naepo Newtown library. Yonhapnews. Available: <http://news.joins.com/article/19801544>
- [14] Modern Management Institute (2010). Future industry and naming. Seoul: Seungsanseogwan.
- [15] Hong, Sung-Jun (2015, March 9). Name the library and receive a gift card. Airport Today. Available: <http://www.air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32>